

## 5》 국제캠 SPACE21사업 정상궤도 오르나



## 8》 인터뷰: '낙서' 수집가 도민호(조경학 2005 동문)



## 학사다이어리 – 2014학년도 동계 계절학기

- 개설과목확인: 11. 17일
- 수강신청: 12. 1(목) ~ 12. 15(월)
- 등록금 납부기간: 12. 16(화) ~ 18(목)
- 수업기간: 2014. 12. 22(월) ~ 2015. 1. 14(수)
- 수업료: 1학점당 8만 9,000원

## 조 총장, 총장 선임절차 논란 사과 … 구성원과 대화 약속

## 총장선임 절차 논란

권오은 기자 typhoon11@khu.ac.kr  
이재은 기자 jenny95@khu.ac.kr

조인원 총장이 지난달 31일 진행된 '제15대 총장 선임' 과정에 대해 "의도하지 않게 학생들 마음을 상하게 해 미안하다"며 "절차상 미숙한 점이 있었다"고 사과했다. 또한 오는 19일 전후로 "구성원과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에 동의했다. 이같은 내용은 지난 6일 진행된 조 총장과 서울캠퍼스(서울캠) 총학생회(총학) 박이랑(사학 2008) 회장 간 면담에서 진행된 것이다.

조 총장은 총학 박 회장과의 면담에서 총장선출제도뿐만 아니라 대학 전반의 거버넌스에 대한 연구까지 함께 진행해, 이사회에 제안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개방이사에 대해서도 법적 문제 등을 범인에서 검토하도록 제



안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수의 사업과 관련해서는 등록금 외 수의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관련된 계약 사항과 수입 정도를 홈페이지 통해 공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번 총장 선출 논란은 '법적 정당성' 차원이 아닌 '구성원에게 사전 공지가 전혀 없었던 데' 그 원인이 있다. '사립학교법 제53조(학교의 장의 임면) 1항'에 따르면 '각급 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를 설치·경영

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면'하도록 되 있다.

이를 기반으로 '학교법인경희학원정관 제1절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중 제1관 임면'에는 '각급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하며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현 조인원 총장이 사립학교법 상 별도의 '결격사유'가 없기 때문에 앞선 조항에 따른 임명은 '합법'이다. 그러나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8

조의3(회의록의 공개기간 등) 1항'에 따라 '이사회의 회의록은 회의일로부터 10일 안에 당해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3개월 간 이를 공개'해야 할에도 불구하고, 지난 9월에 열린 4차 이사회 회의록이 지난 4일에서야 공개됨에 따라 지난해부터 대학전반에서 제기된 이사회의 '투명한' 운영에 배치돼 논란을 불러왔다.

▶4면으로 이어짐

##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평균보다 '19.6%pt' 낮다

## 대학알리미 재정건전성 평가

이진우 기자 urusa93@khu.ac.kr

우리학교의 재정건전성이 여전히 경쟁대학과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26.8%를 기록해, 하위 30~10%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립대학 재정 및 회계지표'가 지난 3일 대학정보공시 홈페이지인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http://www.academyinfo.go.kr))를 통해 공개됐다.

한편 학생 1인당 교육비, 교육비 환원율, 장학금 지급률, 법인전입금은 모두 2등급을 받았다. 학생 1인당 교육비의 경우 사립대학 평균인 1,263만 원 보다 350만원 많은 1,613만 원을 기록했으나, 1등급을 받은 연세대(2,677만 원)나 성균관대(2,175만 원)과 큰 격차를 보였다. 교육비 환원율 역시 191.1%로 사립대학 평균 168.9%를 웃돌았지만, 연세대(284.5%), 성균관대(231.2%)보다 저조했다. 장학금 지급률은 사립대학 평균 21%보다 높은 24.4%를, 법인전입금 비율은 사립대학 평균 4.5%보다 높은 6.63%를 기록했다.

1등급을 받은 학교는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이었다. 우리학교는 19.6%를 기록해, 사립대학 평균인 46.4%에 비해 19.6%pt 낮았다. 특히 1등급을 받은 연세대(113.7%)와 비교하면 86.9%pt 낮은 수치이다. 학교법인이 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 중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이 '기준치(학생수 X 20만 원)'에 비해 얼마나 확보됐는지를 평가하는 지표임을 감안할 때, 우리학교의 재정건전성은 앞으로 중점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문이다.

등록금 의존률과 부채비율도 다

▶3면으로 이어짐

소 저조한 성적인 3등급을 받았다. 두 항목 모두 사립대학 평균인 56.9%와 3.4%보다 높은 58.7%와 3.64%를 기록했다. 등록금 의존률의 경우 38.1%로 1등급을 받은 연세대에 비해서 20.6%pt 높아,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재원 다변화'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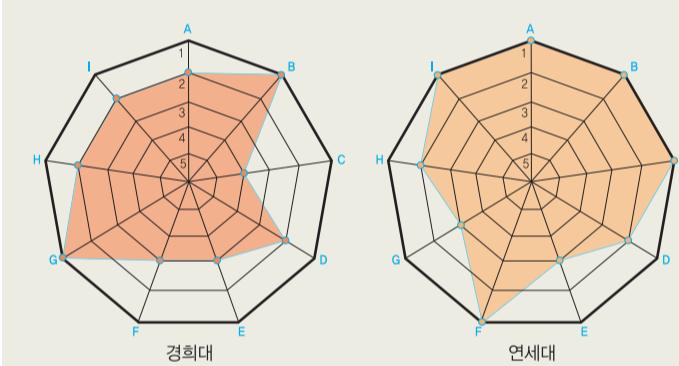
한편 학생 1인당 교육비, 교육비 환원율, 장학금 지급률, 법인전입금은 모두 2등급을 받았다. 학생 1인당 교육비의 경우 사립대학 평균 168.9%를 웃돌았지만, 연세대(284.5%), 성균관대(231.2%)보다 저조했다. 장학금 지급률은 사립대학 평균 21%보다 높은 24.4%를, 법인전입금 비율은 사립대학 평균 4.5%보다 높은 6.63%를 기록했다.

1등급을 받은 학교는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 &lt;2014 사립대학 재정 및 회계지표 평가 결과&gt;

## 그래프 보는법

각 지표별로 1~5등급 구분  
1등급일 경우 최고 등급  
등심원 가장 바깥선이  
1등급이고 인쪽 선이 5등급



## &lt;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gt;

사립대학평균	46.4%
경희대	26.8% (★★★)
고려대	23.8% (★★★)
연세대	113.7% (★★★★★)
중앙대	34.0% (★★★★)
한양대	78.6% (★★★★)

## &lt;등록금 의존률&gt;

사립대학평균	56.9%
경희대	58.7% (★★★)
고려대	52.8% (★★★★)
성균관대	47.8% (★★★★)
연세대	38.1% (★★★★★)
중앙대	60.5% (★★★)

## Newsmaker

주거문제 공동대책위원회  
강필준(자율전공학 2012) 위원장

“주거문제 해결 앞장서야 할  
구청이 임대업자 눈치만 살피고 있다”

백승철 기자 scho1357@khu.ac.kr

#. 서울캠퍼스 공공기숙사 문제 가 행정심판 국면까지 접어든 가운데, 학생들의 주도적 움직임이 눈에 띈다. 특히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발족 이후, 지난달 30일 동대문구청과 새정치민주연합 당사 등을 찾는 '기숙사 버스투어'를 운영해 공공기숙사 건립을 촉구했다. 그리고 이번 주 기숙사 버스투어 당시 제안한 '면담'이 진행됐다. 공대위 강필준 위원장을 만나 공공기숙사와 관련 한 폭넓은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들은 비싼 등록금과 교재비 그리고 용돈도 모자라, 방세까지 부모님께 손 벌여야 한다"라며, "특히 기숙사 문제는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다. 학생이 누려야 할 '주거권'과 관련 돼 있기 때문에 동대문구청과 학교가 더욱 책임지고 힘써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5면으로 이어짐

## 고대 중국의 문학과 철학의 보고 《장자(莊子)》

(寶庫)

후마니타스칼리지 - 대학주보  
공동기획, 고전의 사계 ⑬

김시천 후마니타스 교양교육연구소 연구원

『장자』(莊子)는 『노자』(老子)와 더불어 고대 중국의 도가(道家)를 대표하는 문헌으로서, 때때로 이 둘을 묶어 '노장'(老莊) 철학이라 부르기도 한다. 전통적으로 『장자』는 전국(戰國) 시대의 맹자(孟子)보다 약간 늦은 장주(莊周)가 지었다고 하는데, 오늘날에는 전체가 장주의 저술로 생각되지는 않지만 대체로 '그'의 사상을 담은 철학 저술로 평

가된다.

『장자』는 그 첫 두 편인 「소요유」(逍遙遊)와 「제물론」(齊物論)의 「소요」와 「제물」이 크게 유행될 정



장자는 동아시아 사상에서 커다란 영향을 미쳐왔다. 특히 한대(漢代)에 발행한 도교 전통과 위진(魏晉) 이래 문학과 예술 분야에 미친 영향은 매우 크다. 그럼에도 『장자』가 늘 동아시아 사랑받기만 했던 것은 아니다. 마지막으로 장주가 흔히 전국 시대의 사상가로 알려져 있지만 『장자』는 전국 시대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책이었다.

어떤 이들은 한(漢) 왕조 때 『회남자를 지은 유안(劉安)이 『장자』를 편찬하였다고 본다. 왜냐하면 유안 이전에 『장자』라는 책은 존재했을 가능성이 의심스럽고, 역사가 사마

천(司馬遷)의 『사기』(史記)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장자』라는 책이 역사 기록에 출현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행하기 위해서는 더 뒤늦은 위치 시대를 기다려야 했다. 파란만장한 영웅 소설 『삼국지』(三國志)의 시대가 끝이 날 무렵 등장하는 죽림칠현(竹林七賢)의 시대에 이르러 『장자』는 지식인들 사이에 유행하였다. 오늘날 우리가 읽는 『장자』는 이 시대에 편집된 책이다.

전통 지식인들의 『장자』에 대한 평가 또한 다양하다.

▶7면으로 이어짐

## 알림

## 제작비 여건상 한 주 휴간합니다.

## 다음호는 11월 24일 발행됩니다.

대학주보 온라인 기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계속 연재됩니다.

media.khu.ac.kr/khunews



## 대학 특성화사업 칼럼

인류사회 공헌을 위한 교육과 실천 중심의 융합형 글로벌 인재 양성 사업단 서정건 부단장의 '글로벌 리더의 조건'

첫 번째 연재

▶6면



## 시선

### 사설

## 직접 참여 민주주의, ‘전자투표제’로 실현하자

이번 주부터 양 캠퍼스 총학생회 후보자 등록이 진행된다. 재직학생 3만 명이 넘는 우리학교에서 학생대표자의 중요성과 의미는 매우 크다. ‘학생 대표자’ 선출의 의미를 넘어 향후 1년, 우리학교 운영에 중요한 결정을 하는 시기라고 평해도 과하지 않다. 그러나 선거가 시작되기도 전부터 ‘걱정되는’ 부분은 최근 학생사회에서 연일 불거지고 있는 문제 탓이다.

2학기 들어 서울대 총학생회장 제적논란이 보도됐다. 총학생회장이 제적으로 인해 ‘권한’을 상실한 상황을 부총학생회장과 중앙집행위원장 등이 의도적으로 은폐했고, 더불어 예산사용의 불투명성까지 겹치면서 학생 사회의 실망은 극에 달았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고려대 총학생회 선거비리 역시 뜨거운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대해 ‘학생회’의 도덕적 해이나 ‘권력화’에 대한 문제제기도 나타나고 있지만, 과연 이 문제가 ‘학생회’ 내부의 일로 국한시킬 일인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당장 서울캠퍼스에서 대자보로 치열한 공방을 이어온 총동아리연합회와 한기연의 진실게임이나, 국제캠퍼스에서 지난 2011년 이후로 반복적으로 문제제기되고 있는 선거시행세칙 중 ‘4학년 투표권’ 논란 등도 동일한 뿌리를 갖고 있다. 바로 ‘무관심’이다. 그동안 학생 사회의 무관심을 극복하기 위한 수많은 선전과 캠페인에도 불구하고, 투표일 연장은 연례행사처럼 매년 등장한다. 배경은 결국 ‘의사표현’ 수단의 한계 탓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서울캠퍼스 학생회 투표에 ‘전자투표제’를 도입하는 것은 새로운 돌파구로서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어 보인다. 많은 시간을 인터넷을 비롯한 모바일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시대에, 종이투표를 고집하는 것은 수단과 목적이 전도되는 일이다. 대표자를 선출하는 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다 많은 유권자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물론 ‘첫’ 시행인 만큼 작은 실수부터, 중대한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전자투표제의 특성상 해킹을 비롯한 ‘조작’ 문제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하지만 이는 보완하고 방지해야 할 문제이지 전자투표제 그 자체의 의미를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전자투표제 도입이라는 시작점에 대한 기대는 크다. 특히 앞으로 대표자 선거뿐만 아니라, 학생사회에서 하나의 미래상으로 제시했던 ‘직접참여민주주의’의 발판으로 가는데 전자투표제의 적극적인 활용은 의미심장하다. 이는 갈수록 다양해지는 개인의 가치관과 판단을 한 사회에서 어우르는데 대의제는 분명 한계가 있을뿐더러, 자신의 권리를 직접 행사하는 것에 비해 물집감과 관심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해서라도 더욱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학생사회에 국한할 일은 아니다. 최근 구성원 사이에서 논란이 된 총장선출제도에 대한 연구부터, 교수의 회와 노동조합 등의 선거와 활동에서도 학생사회에서 등장한 전자투표제는 유의미한 검토의 대상이다.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더 많은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새로운 그릇을 찾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한다.

## 정외과 용혜인씨

## 세월호 관련 시위 혐의로 불구속 기소 돼

미디어 여론동향 2014.11.3 ~ 11.9

여론동향팀 khunews@knu.ac.kr

경희대병원 정형외과 정덕환 교수가 지난달 25일 열린 ‘제33차 대한미세수술학회 학술대회’에서 임상부문 우수논문상을 받았다.(정덕환 교수, 대한미세수술학회 우수논문상 수상/청년의사, 2014.11.3) 수상 논문은 ‘감염이 동반된 하지의 대형골 결손에 시행하는 미세수술을 통한 유리파판술과 동족의 생비골 전위술이다. 이번 연구는 골수염이 동반돼 있고 뼈의 결손이 크기 때문에 일반적인 치료 방법으로 치료할 수 없는 심



이주의 주제 - 캠퍼스 마스터플랜부터 SPACE21까지 ‘8년’

## SPACE21사업, ‘첫 삽’ 뜰까?

최승욱 기자

〈경기〉



“노후된 시설, 많이 불편하셨죠? 5개 단과대학 중앙도서관이 신축되고, 우리 대학은 연구중심, 특성화 대학으로 나아가기 위한 도약을 시작합니다.” 지난 2007년 서울캠퍼스 ‘마스터플랜 최종보고 회의’에서 나온 말이라고 한다. 기자가 중학교 1학년이던 시절의 대학주보 기사내용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기사들은 흥미롭다. ‘곧’ 시작될 공사로 인한 교육환경 문제를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신축’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단과대학에서는 “우리 건물이 더 낡았다”고 토로한다.

원래대로라면 1차 마스터플랜이 완성돼야 하는 2009년을 지나, 2010년이 되어야 1차 마스터플랜에 돌입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기자가 고등학교 1학년이던 때다. 이때의 모습도 2007년과 유사하다. 웅성웅성 거리는 소리들이 잠잠해질 때까지 양 캠퍼스에서는 ‘무용학부관’이 한 동 건설되고, 정문 주변정비가 진행됐다. 2011년까지 ‘공사 문제’는 없었고, 여러 번 열렸던 공청회의 결론은 늘 같았다. “빨리 지어달라.”

공사가 연기되면서, 기존의 마스터플랜 계획이 ‘재정적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는 진단이 쏟아진다. 결국 2011년, 마스터플랜은 ‘축소’된다. 이후 조용한 시간들 사이 2012년 5월 법인의 승인이 이

뤄졌다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여전히 경희대는 고요했다. 그리고 2013년 1월, ‘캠퍼스 종합개발’이 시작됐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러나 3월 예정돼 있던 노천극장 리모델링은 5월까지 진척이 없었다. 중학교 1학년이었던 기자가, 어느덧 ‘두 번째 수능’ 200일을 앞두고 두려움에 떨 무렵이다.

기자가 중학생에서, 고등학생으로 다시 재수생으로 신분이 바뀔 때마다 캠퍼스 마스터플랜, 이제는 SPACE21 사업이라 바뀐 이 계획은 나이테를 하나씩 들었다. ‘짓는다!’에서 ‘지를 것!’, 다시 ‘짓나?’로 변해가는 과정에서, 대학주보의 수많은 기사는 결과적으로 ‘거짓말’이 됐다. 선배 기자들을 이야기할 것도 없다. 당장 올해 대학에 입학한 기자와 동기들 역시 4월에, 6월에, 8월에 그리고 지난달에 ‘공사의 시작’ 가능성을 점쳤으니까.

이번 취재과정에서 다시 “입찰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올해 안에 종합체육관 착공을 시작한다”라는 말을 들었다. SPACE21사업이 드디어, 정말, 진짜, 참으로 첫 삽을 뜰까. ‘담당자’의 말이기 때문에 기사에 적긴 했다. 하지만 기대보다 기자가 대학교 4학년이 될 때쯤에 또 ‘새로운 설계안’이 나오는 것은 아닐까하는 의심이 먼저였다. 이제 1년 캠퍼스에 대문 기자조차 이렇다면, 더 오래 지낸 고학번들 혹은 이곳이 직장인 교수와 직원들은 어떨까. 무려 8년이다. 이제 더 이상 ‘졸속’ 계획을 의심할 기운도 남지 않은 구성원에게 2014년은 무엇으로 기억될지 궁금하다. 사실 올해는 2007년 발표했던 캠퍼스 마스터플랜 2차 공사가 마무리돼 ‘경희가 미래로 도약한다’던 때다.

각한 경골, 대퇴골 골수염, 연부조직 결손의 경우를 대상으로 했다. 연구팀은 미세수술을 이용해 연부조직을 피복하고 뼈도 재건하며, 골수염의 치료와 연부조직의 재건 및 골유합을 얻게 하는 방법을 제시, 올해 우수논문의 영예를 안았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는 세월호 관련 시위를 벌인 혐의로 우리학교 용혜인(정치외교학 200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가만히 있으라’ 시위 기획 대학생 불구속 기소/MBN, 2014.11.3) 용 씨는 지난 5월 18일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침묵행진 ‘가만히 있으라’를 기획해 서울광장 등지에서 집회를 벌였다. 용 씨는 오후 7시가 넘어 미리 신고한 행진 시간이 끝 났음에도 참가자 150여 명과 함께 오후 10시까지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연좌시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12-13일 ‘청명십수(淸明心受), 김백봉 춤의 아리랑’이 공연된다.(한국무용 大家의 춤꽃 활짝 피었다/조선일보, 2014.11.4) 우리학교 무용학과 김백봉 명예교수는 ‘한국 신(新)무용의 대모(代母)’와도 같은 존재다. 무용가 최승희의 문하생으로

14세 때인 1941년 일본 도쿄에서 처음 무대에 섰으며, ‘화관무’ ‘부채춤’ ‘산조’ ‘만다라’와 무용극 ‘심청’ ‘춘향전’ 등으로 신무용의 형태와 기틀을 마련했다. 1952년 무용연구소를 열었고 1992년 우리학교 교수로 정년퇴임할 때까지 수많은 제자를 배출했다. 그의 독무(獨舞)에 초점을 맞춘 이번 공연은 정은혜·장유경·장인숙 등이 출연하며, 올해 공연 40주년을 맞은 ‘청명십수’를 비롯해 ‘선의 유동’ ‘광란의 제단’ 등이 펼쳐진다.

신명숙(55) 동문(대진대 무용예술학부 교수)이 춤 인생 50년을 기념해 11일까지 종로구 관훈동 갤러리 이즈에서 ‘춤추는 한지인형’ 전시회를 열고 있다.(신명숙 춤 인생 50년, ‘춤추는 한지인형’展/세계일보, 2014.11.4) 이번 전시회에서 무용가이자 종이 공예가인 신 동문은 부채춤, 태평무, 장구춤, 소고춤, 살풍이, 승무, 겸무 등 다양한 공연 모습을 소재로 만든 전통 한지 인형을 전시하고 있다. 우리학교 무용과에서 학·석사를 취득한 신 동문은 중국 중앙민족대학에서 무용 인류학전공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1998년 대진대 무용예술학부 교수로 부임했다.

## MOOC, 학벌없는 세상 여는 ‘열쇠’되나

세시봉



정용자 (여론팀장)

이번 학기 KLAS의 온라인 강의를 수강 중이다. 오랜만에 들어본 온라인 강의에 대한 소감은 한마디로, “세상 참 좋아졌다!” 경희온라인캠퍼스(KOC) 시절에 비교해봤을 때의 이야기다. 당시 온라인 강의는 교수와 학생 간 피드백에 한계가 뚜렷했고, 집중력이 분산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하지만 KLAS의 온라인 강의는 매주 보는 쪽지 시험으로, 항상 ‘집중’해야 한다. 즉각적인 피드백은 KLAS에 포함돼 있는 ‘포트폴리오 시스템’을 통해 많은 부분 해결됐다. 그날 수업을 정리해 포트폴리오 시스템에 게시하고, 학습내용과 관련된 질문을 남겨놓으면 며칠 사이 친절한 답변이 도착해 있다. 게다가 함께 공부하는 학생들의 정리내용과 질문내용, 교수의 답변까지 바로 참고할 수 있다. 잘 구성된 시스템 덕분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은 새삼 감사한 일이다.

지금 세계 곳곳에서는 MOOC(Massive Open Online Course)라고 불리는 개방형 온라인 강의가 성장하고 있다. 실제로 유대시티, 코세라, 에드엑스 등의 3대 개방형 온라인 강의는 서비스를 개시한지 불과 1년 반 정도 만에 수강생 수가 일반적인 대학정원의 438배에 육박하고 있다. 또한 3대 MOOC 이외에도 현재 40여개 이상의 MOOC가 존재하고 있으며, 에드엑스와 코세라는 아시아 대학들을 협력대학으로 참가시켜 시장 개척에 나서고 있다. 서울대는 에드엑스에, KAIST는 코세라에 참여한 상태다.

**누구나 무료로 언제 어디서나 세계 최고의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세상에서 ‘학벌’은 그 의미가 퇴색될 것이라 희망해본다**

세계적인 미래학자 제레미 리프킨은 자신의 신간 『한계비용 제로 사회』를 통해 “MOOC와 함께 시작된 한계비용 감소 현상은 불과 2년 사이에 고등교육 구조에 깊숙이 침투해 수백만 학생이 대학 학점을 취득하는 한계비용을 제로 수준에 가깝게 만들고 있다”며 “엘리트 대학들이 학생에게 제공하는 온라인 강좌가 거의 무료가 되면 전통적인 고등교육 시스템 전체에 손실이 발생할 것이다. 전통적인 대학은 MOOC를 갈수록 더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물론 지금의 온라인 강의 시스템은 아직도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많은 기대효과가 존재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오래 전부터 학벌문제의 폐해가 사회문제로 지적받아왔다. 임시경쟁, 대학 서열, 학별구조가 뒤엉켜 만들어낸 모순은 중등교육의 대학입시 도구화와 사교육비 상승과 같은 문제를 키우고 있다.

MOOC가 단숨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겠지만, 누구나 무료로 언제 어디서나 세계 최고의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세상에서 ‘학벌’은 그 의미가 퇴색될 것이라 희망해본다. 그리고 그런 날이 왔을 때 진정으로 다시 외칠 수 있을 것이다. “세상 참 좋아졌다!”

## 알림

대학주보 페이스북 페이지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뉴스와 정보는 물론, 취재과정 도 독자 여러분과 공유합니다.



www.facebook.com/khunews

교훈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경희대학교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주간)

발행·편집인 조인원 | 주간 김민진 | 편집인 권오은 | 제작·인쇄 중앙일보미디어아이디어(주)  
구독료 1년 1만원 | 구독 02-961-0093-4 | 주소 경기 02-441-7317(인터넷기획)

인터넷대학주보 http://media.knu.ac.kr | 이메일 khunews@knu.ac.kr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회기동) | Tel 02-961-0093-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양대로 1732(서천동) | Tel 031-201-3230-2, FAX 031-204-8121

## 연구비 수혜실적, 이공계열 '압도적' 교내연구비 예체능계열 평균 1,500만 원 줄어

### 전임교원 1인당 연구비

이민교 기자 mingyo@khu.ac.kr

우리학교의 전임교원 1인당 연구비(8,700만 원)가 단과대학별로도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http://www.academyinfo.go.kr))가 지난달 30일 공시한 '2013년 전임교원의 연구비 수혜실적'을 비교분석한 결과다.

전임교원 1인당 연구비를 계열별로 따져봤을 때 이공계열(1억 7,903만 원)이 가장 높았고, 예체능계열(5,724만 원), 인문사회 계열(2,413만 원) 순이었다. 지난 3년간 전임교원 1인당 연구비 상위 5개 단과대학은 이과대학, 공과대학, 전자정보대학, 생명과학대학, 생활과학대학이 계속 차지하고 있다. 등락 추이에 따라 순서만 일부 바뀔 뿐이다.

이는 계열특성에 따른 '교외연구비' 격차가 두드러지기 때문에 풀이된다. 예를 들어 호텔관광대학은 전임교원 1인당 교외연구비가 2,971만 원으로 인문사회계열 중 가장 많은 실적을 거뒀지만, 이공계열의 평균의 1/5에도 못 미쳤다. 계열 특성에 따른 격차가 현격함을 쉽게 알아볼 수 있다.

반대로 '교외 연구비'가 부진한 대학도 상당수였다. 전임교원 1인당 교외연구비에서 외국어대학(612만 원)과 문과대학(823만 원) 등은 1,000만 원 이하의 연구비 수혜실적에 그쳤다. 예체능계열에서도 체육대학(8,769만 원)이 비교적 높은 실적을 거뒀지만, 아래에 무용학부(285만 원), 미술대학(104만 원) 등은 연구비 수혜실적이 평균보다 턱 없이 부족했다.

한편 '전임교원 1인당 교내 연구비'의 경우 이과대학, 국제대학, 경영대학, 후마니타스칼리지, 간호과학대학의 5개 단과대학을 제외하고는 연구비가 모두 하락했다. 이는 우리학교 교내연구비 전체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2011년 371건의 연구에 247억 원을 지원하던 교내연구비는 2012년

(2012-2013 전임교원 1인당 교내 연구비)

	2012	2013	등락폭
간호과학대학	255만 원	289만 원	▲34만 원
경영대학	1,831만 원	0원	▼1,831만 원
공과대학	2,888만 원	2,409만 원	▼479만 원
국제대학	551만 원	1,750만 원	▲1,199만 원
문화대학	1,298만 원	696만 원	▼602만 원
미술대학	1,720만 원	111만 원	▼1,609만 원
생명과학대학	1,180만 원	0원	▼1,180만 원
생활과학대학	942만 원	182만 원	▼760만 원
약학대학	800만 원	400만 원	▼400만 원
예술·디자인대학	1,070만 원	274만 원	▼796만 원
외국어대학	697만 원	294만 원	▼403만 원
음악대학	1,506만 원	589만 원	▼917만 원
응용과학대학	1,602만 원	1,358만 원	▼244만 원
이과대학	1,448만 원	3,198만 원	▲1,750만 원
전자정보대학	2,387만 원	1,252만 원	▼1,135만 원
정경대학	1,383만 원	2,553만 원	▲1,170만 원
체육대학	1,814만 원	342만 원	▼1,472만 원
한의과학대학	362만 원	133만 원	▼229만 원
호텔관광대학	1,453만 원	508만 원	▼945만 원
후마니타스칼리지	70만 원	187만 원	▲117만 원
무용학부	1,802만 원	1,286만 원	▼516만 원

(2012-2013 전임교원 1인당 교외 연구비)

	2012	2013	등락폭
간호과학대학	2,360만 원	2,512만 원	▲152만 원
경영대학	2,732만 원	937만 원	▼1,795만 원
공과대학	13,861만 원	19,107만 원	▲5,246만 원
국제대학	122만 원	619만 원	▲497만 원
문화대학	1,855만 원	822만 원	▼1,033만 원
미술대학	400만 원	104만 원	▼296만 원
생명과학대학	8,560만 원	15,441만 원	▲6,881만 원
생활과학대학	14,058만 원	15,981만 원	▲1,923만 원
약학대학	4,548만 원	5,970만 원	▲1,422만 원
예술·디자인대학	6,764만 원	1,484만 원	▼5,280만 원
외국어대학	1,435만 원	611만 원	▼824만 원
음악대학	0원	0원	0원
응용과학대학	8,132만 원	9,415만 원	▲1,283만 원
이과대학	17,484만 원	14,375만 원	▼3,109만 원
전자정보대학	15,258만 원	16,304만 원	▲1,046만 원
정경대학	2,538만 원	2,869만 원	▲331만 원
체육대학	6,495만 원	8,769만 원	▲2,274만 원
한의과학대학	3,403만 원	4,832만 원	▲1,429만 원
호텔관광대학	2,137만 원	2,971만 원	▲834만 원
후마니타스칼리지	1,504만 원	1,675만 원	▲171만 원
무용학부	0원	285만 원	▲285만 원

## "현재 융합교육 다전공과 다르지 않다"

### 융합교육 대토론회

이승연 기자 leesy0317@khu.ac.kr

"평균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전공 하나만으로 남은 인생을 끌어가 긴 힘들다." 융합교육지원센터 허균영 센터장은 '융합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그 방향을 '실질적'인 삶에 대한 고민이라고 꼽았다. 학제간 연구가 가속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학생들에게 다른 전공의 벽은 높다. 이런 상황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융합교육지원센터와 공학교육혁신센터는 지난 6일 국제캠퍼스 멀티미디어교육관에서 '융합교육 대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허 센터장을 비롯해, 공학교육혁신센터 이준복 센터장, 이선아(한국어학) 교수로 구성된 전문가 패널과 6명의 학생패널, 100여 명의 청중이 참여했다. 학생패널들의 사례발표를 통해 현재 우리학교의 융합교육 실태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무용과 한의학 융합트랙에 참여한 홍우인(무용학 2013) 양은 "한의학적 지식을 무용에 접목해 '혈자리'를 자극하는 수업을 들었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노인분들께 재능기부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비교과 융합프로젝트 프로그램에 참여한 최형원(환경학 및 환경공학과 2012) 양 역시 "싱가폴국립대에서 진행하는 설계 프로그램에 참여했다"며 "다양한 국적과 문화, 전공의 사람들과 경험을 통해 전공 책만이 담이 아니라는 사실을 느꼈다"고 설명했다.

본격적인 토론이 시작됐고, 단과대학별 '융합교육현황'에 대한 학생



패널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비교과 대표로 나온 최 양은 "비교과 측면에서 봤을 때 융합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은 존재한다"고 말한 반면, 이예진(언론정보학과 2013) 양은 "언론정보학과의 경우 4가지 트랙이 있지만 융합교육이라고 보긴 힘들다"는 입장을 보였다. 논의가 거듭 이어졌지만, 결론적으로 다수의 패널이 융합교육이 다전공과 다르지 않거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융합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엇갈렸다. 최역인(생체의공학 2010) 교수는 "융합도 중요하지만, 학문의 깊이도 그만큼 중요하다"며 전공 중심의 교육을 강조한 반면에,

은 수치를 보여 1등급을 받았다.

\*사립대학 재정 및 회계지표 : 교육투자, 재무안전성, 법인책무성의 3개 분야, 9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학생 1인당 교육비 ▲교육비환원율 ▲장학금 지급률 ▲이월금 비율 ▲등록금 의존율 ▲부채비율 ▲법인전입금 비율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학교운영경

비 부담률 등이다. 이를 항목을 해당 대학의 등급 파악이 가능하도록 5등급으로 나누어 ★로 표시됐다. 상위 10%★ 5개 : 1등급), 상위 10%~30%★ 4개 : 2등급), 상위 30%~70%★ 3개 : 3등급), 상위 70%~90%★ 2개 : 4등급), 하위 10%★ 1개 : 5등급) 등으로 구분됐다.

다양한 논의가 오고간 가운데, 융합교육지원센터는 토론회 녹화 분을 분석해 향후 정책결정시 참고할 보고서로 만들 계획이다.

### 경희대와 삼성노블카운티가 함께하는 작은 나눔 2014 가을 음악회

2014. 11. 13 (목) 19:00

삼성노블카운티 3층 국제회의실

주최 경희대 생활관, 삼성노블카운티

후원 삼성노블카운티 보은회, GS건설, 경희대 학생기숙사(유), 생활관 자치회

음악회 모금액은 지역사회 결손가정 및 불우청소년돕기에 사용됩니다.

### 2014학년도 2학기 수시 강의평가 시행안내

2014학년도 2학기 수시 강의평가 시행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오니, 수업의 질을 높이고 학업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학생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수시평가는 평가문항을 별도로 두지 않으며, 수업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 또는 요청사항을 개방형으로 기술할 수 있습니다.

\* 수시 강의평가는 평가자의 인적사항이 교강사 조회화면에 표시되지 않으며, 교강사에 의해 수업평점은 활용되므로 참고입니다.

1. 수시 강의평가 진행기간 : 2014. 10. 6(월) 10:00 ~ 11.28(금) 17:00 (8주)

2. 진행절차 : 종합정보시스템→수업/성적/상당→강의평가→수강평점확인

3. 입력화면 설명  
가. '강의내역' : 선택한 강의내역을 확인  
나. '2평가문항' : 수업운영에 대한 의견 또는 요청사항"을 개방형으로 기술하고 저장합니다.

다. '3평가내역확인' : 본인이 일자별로 올린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교강사 확인여부 파악 가능

4. 평가내역 수정  
가. 수시 강의평가내용의 수정은 담당 교/강사 확인 전에만 가능합니다. 평가 회면에서 본인이 작성한 내역을 클릭

다. 평업창이 뜨면서 작성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본문 직접 수정

라. 수정완료 후 '수정'버튼을 클릭하여 저장하고 '정답'기를 클릭하여 이전화면으로 돌아감

5. 참조 및 유의사항

가. 수시평가는 1교학기 주 2회까지(총 16회) 의견 개진이 가능합니다.

나. 본 수시평가는 평가자의 인적사항이 교강사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다. 교강사 확인 전에는 본인이 평가한 내용을 '삭제'할 수 있으나, 교강사 확인 후에는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 보도



▶면 '총장 선임 논란'에서 이어짐

결국 서울캠 총학을 비롯한 중앙운영위원회(중운위) 위원들은 지난 3일 '이사회'의 총장선출과정이 폐쇄적이고 비민주적으로 진행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서 ▲밀실에서 진행된 총장 선출과정에 대해 문제를 인정하고, 구성원에게 사과할 것 ▲아직 공개되지 않은 정기이사회 4차, 5차 회의록을 공개할 것 ▲총장과 구성원 간의 간담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하기로 중운위가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이후 5일 '이번 총장 선출과 관련하여 총장님께 질의드립니다'라는 질의서를 통해 ▲총장선출 과정과 관련해 구성원에게 사과할 것 ▲학생개방이사 선임에 대한 의견을 밝힐 것 ▲총장선출제도 변경을 직접 책임지고 운영할 것 ▲대학재정 구조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힐

것 ▲구성원과 소통계획을 제시할 것 등을 재차 요구했다. 이런 요구에 따라 6일 면담이 성사된 것이다. 면담이 끝난 후 정문 인근에서 진행한 면담결과 보고에서 총학 박이랑 회장은 "임기가 끝날 때까지 총장선출방식과 관련된 활동을 이어가겠다"며 "신임 총장이 어떻게 학교를 이끌어가면 좋을지에 대해 구성원의 의견을 모아 전달하는 활동도 끊임없이 하겠다"고 전했다.

### 학생, '밀실 선출 과정' 유감 총장, "절차상 미숙 있었다"

현재 서울캠 총학은 오는 11일 청운관에서 총장선출방식 등과 관련해 긴급 여론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교수사회에서도 총장 선임과정에 대한 문제제기가 나왔다. 지난 4일 서울

### 〈총장 '밀실' 선임 논란〉

10.31	5차 이사회 결과, 제15대 총장으로 조인원 총장 3연임 결정
10.31	서울캠 총학, '번갯불에 콩 구워먹는 식의 총장 선출과정에 대해 유감'
11.3	중운위 결과, '비민주적 밀실 선임'에 대한 사과 요구 결의
11.4	서울캠 교수의회 '기술적 총장 선임' 유감표명·신임투표 제안
11.5	중운위, 총장선임절차와 재정 문제 등 5개 질의서 총장실 전달
11.6	총장·총학 면담, 조 총장 "절차 미숙한 점 있어 사과"
11.19	총장·구성원 논의 테이블 개최 예정

캠퍼스 교수의회 역시 '총장 선출에 즐음하여'라는 대자보를 통해 '지난 9월 26일 교수의회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마련한 총장선출방식(안)을 법인에 제출했다'며 '법인은 어떤 설명이나 해명 없이 기습적으로 총장을 선임했다'고 유감을 표했다. 이어 '법인은 구성원 누구에게도 공지하지 않은 채 신임 총장을 서둘러 선임해, 교수의회가 기공지한 총장 평가 수행의 의미를 존중하지 않고 운영할 것'에 대해 차선책으로 '신임 투표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한 교수의회 국제지회와 의학지회도 동참해 줄 것을 공식 제안한다'고 말했다. 서울캠 교수의회 이성근(관광학) 의장은 "교수의회의 신임투표를 제안한 것은 원래 총장의 신임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이 교수의회 회칙에 나와 있기 때문"이라며 "신임투표와 관련해 찬반 인터넷 투표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수의회 동석호(의학) 의장은 서울지회에서 신임투표를 제안한 것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전했다.

## 서울캠 교수의회 '독립' 선언

### 2014 교수의회 선거

이재은 기자 jenny95@knu.ac.kr

교수의회 서울지회가 '서울캠퍼스(서울캠) 교수의회' 설립절차를 마쳤다고 밝혔다. 사실상의 독립선언이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이메일이 지난 3일 서울캠 교수들에게 전달됐다. 서울캠 교수의회는 '과반 이상의 교수가 회칙 제정 및 회비 납부에 서명해 서울캠퍼스(서울캠) 교수의회는 설립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완료했다'며 '서명 과정에서 제기한 우려를 깊이 새겨, 보다 나은 교수의회가 되겠다'고 밝혔다.

서울캠 교수의회는 설립 선언과 함께 '의장단' 선거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지회 안정선(물리학) 사무처장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오는 12일 까지 차기 의장단 후보등록을 진행하며, 투표를 거쳐 이달 내로 선거를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한편 교수의회 동석호 의장은 교수의회 서울지회가 지난달 과반 찬성으로 독립 절차를 마쳤다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은 분명히 했다. 동 의장은 "서울지회의 독립은 교수의회를 벗어난 또 다른 교수모임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저지하거나, 또 교수의회에서 언급하진 않겠지만 '교수의회 서울지회의 독립'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교수의회는 차기 임원 의장단 선거시 서울지회 의장도 함께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 전자투표제 '최초' 도입... "조작 가능성 없다"

### 2014 학생회 선거

이재은 기자

【서울】 우리학교 선거에도 최초로 전자투표제가 도입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일 열린 2차 정기회의에서 전자투표제를 도입하기로 의결했다. 전자투표제를 시행하면 기존에 총학생회선거, 종여학생회선거, 단과대학 선거, 학과 학생회 선거 등을 모두 별도로 진행한 것과 다르게, 한 '장소'에서 모든 투표를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전자투표제가 모든 학생회 선거에서 반영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올해는 '시범' 단계인 만큼 학과 학생회 선거의 경우 전자투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한 약학대학, 자율전공학과, 정경대학, 총유학회 등은 전자투표제를 도입하지 않기로 했

서울 캠퍼스		국제 캠퍼스
후보자 등록기간	2014.11.10(월) ~ 11.12(수)	2014.11.10(월) ~ 11.16(일)
선거운동	2014.11.13(목) ~ 11.21(금)	2014.11.17(월) ~ 11.30(일)
투표 기간	2014.11.24(월) ~ 11.26(수)	2014.12.01(월) ~ 12.03(수)
입후보자 등록 서류	1. 입후보등록원 1통(소정양식) 2. 재학증명서 1통 3. 200인 이상의 추천 서명서 (소정양식, 총여학생회 선거의 경우도 동일) 4. 명함판 사진 1매와 가로세로 1000픽셀 이상의 JPG파일 5. 5개 이내의 선거공약 6. 선거운동본부의 정책 해설서	1. 재학증명서 각 1부 2. 해당 선거구 회원의 추천서 3. 정·부후보 명함판 사진 각 2매(1매는 입후보 등록원서에 부착) 4. 선거공약사항 1부 5. 후보 포스터용 사진이나 포스터 인쇄용 파일 6. 해당학기 자치회비 납입 증명서 각 1부

다. 단과대학별 '선거세칙'의 차이로 인해 투표명부를 통일하는데 한계도 있을뿐더러, 일부에서는 조작 가능성도 제기됐기 때 문이다. 전자투표제 도입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조작 가능성'이다. 이에 대해 총학생회는 '가능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우선 학교측에 요청해 단독 유선 IP만 사용해 접근을 방지할 계획이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진행 시, 학생증 사진과 대조해 본인 확인을 거친 뒤, 개인 바코드를 부여한다.

이밖에도 일반 학생으로 구성되는 '공정 선거감시단'을 오는 12일까지 모집해 부정 행위 등을 최대한 방지할 계획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박이랑(사학 2008) 위원장은 "공정한 선거를 위해 모든 회의와 진행 상황을 공유할 것이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감시할 수 있는 공정선거감시단을 운영하겠다"라고 말했다.

### 2015학년도 동서의학대학원 전기 모집요강

#### I. 모집학과 및 과정

모집학과 및 과정		세 부 연구 분야	모 집 과정	
			석사 학위 석사·박사	편입 학위 석사·박사
동서의학과	한의학/ 의학전공	한의학/의학 석·박사	동서협진/통합의학 줄기세포학 신경약리학	○ ○ ○ ○
	대체보건 의학전공	대체의학 석·박사	통합생리학 지역보건학 조세법학과	○ ○ ○ ○
동서의학과	식의약소 재학전공	의과학 석·박사	소재화학/생유기화학 대사생화학/생화학 세포생리학/세포생물학 분자생물학/생물학	○ ○ ○ ○ ○ ○
	한의학 전공	한의학 석·박사	신경과학/임상해부학 면역/생리생리학	○ ○ ○ ○ ○ ○
의학영양학과	의학 영양학 임상영양학 학전공	의학영양학 석·박사	질병영양/(한방)임상영양학 예방영양/보건영양학 면역영양/응용영양학 피부영양/기초영양학	○ ○ ○ ○ ○ ○

\* 동서의학과 한의학/의학전공 지원자의 학문분야는 의·약학 및 생명과학분야 전공이며 한학.

#### II. 모집 일정

구 분	일 시	장 소
전형 안내	2014.10.13.(월) ~ 11.13.(목)	동서의학대학원 홈페이지 <a href="http://gsm.knu.ac.kr">http://gsm.knu.ac.kr</a>
원서 접수	2014.10.20.(월) ~ 11.13.(목) 1700 까지	우편(방문)접수, 이메일접수
서류 제출	2014.10.20.(월) ~ 11.13.(목) 1700 까지 (공휴일 및 토, 일요일은 제외)	동서의학대학원 행정실 (구 국제경영대학원 행정실 203호)
전형 일시	2014.11.22.(토) 10:00	국제캠퍼스(수원) 지정장소 (원서접수 후 홈페이지 게시)
합격자 발표	2014.11.27.(목) 16:00 예정	동서의학대학원 홈페이지 <a href="http://gsm.knu.ac.kr">http://gsm.knu.ac.kr</a>
예치금 등록	2014.12.01.(월) ~ 12.05.(금)	하나은행 전국지점 (합격자 유의사항 참조)
합격자 등록	2015.02.02.(월) ~	학점 일자는 본 대학원 홈페이지에 공지 예정

\* 세부 일정은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동서의학대학원 홈페이지에 공지함

### 2015학년도 법무대학원 전기 모집요강

#### 1. 모집학과 및 전공(야간)

구 분	학 과	전 공
석사과정	글로벌기업법학과 공공법학과	글로벌기업법전공, 미국법전공 입법전공, 공법전공
특별과정	중국법학과 지적재산법학과 조세법학과	중국법전공 지적재산법전공, 인터넷법전공 조세법전공
수업시간	한·영법 (법률영어, 법률번역, 법률작문, 미국법입문, 한국법입문)	매주 월요일 19:00~21:50 ※ 토요일 주간강의 개설예정

#### 2. 전형방법: 면접

#### 3. 전형일정

구 분	일반전형
원서교부 및 접수	2014. 11. 17(월) ~ 12. 5(금)
전형일	12. 6(토) 14:00
합격자 발표	12. 9(화) 16:00
등록예지금 납부	12. 10(수) ~ 12. 12(금)

- 접수방법 : 우편접수, 방문접수, E-mail접수([khsb2670@knu.ac.kr](mailto:khsb2670@knu.ac.kr))
- 합격자발표는 본 대학원 홈페이지(<http://interlaw.knu.ac.kr>)에서 확인

#### 4. 제출서류

- 가. 입학원서(소정양식) 1부  
- 본 대학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나. 대학교(학부) 출입(예정)증명서 1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 홈페이지 참조(<http://interlaw.knu.ac.kr>)

### 경희대학교 법무대학원



## 칼럼

## 글로벌 리더의 조건



서정건  
정치외교학 교수

'대학 특성화사업'에서 우리학교가 제출한 9개 사업단 중 2개 사업단이 선정됐다. 선정된 사업단은 지리학과와 사학과의 '시공간 빅 데이터 융합 전문가 양성사업', 국제학과와 정치외교학과의 '인류사회 공헌을 위한 "학문과 실천" 중심의 융합형 글로벌 인재 양성사업'으로 각각 7억 원과 10억 원을 매년 최대 5년까지 지원받는다. 이에 우리신문은 각 사업단을 만나,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계획, 목표를 들어보자 한다. 먼저 '인류사회 공헌을 위한 학문과 실천 중심의 융합형 글로벌 인재 양성사업' 서정건 (정치외교학) 부단장에게, 인류사회 공헌을 위한 교육과 융합형 글로벌 인재에 대해 들어봤다.

## 연재순서

1회 : 인류사회 공헌을 위한 교육과 융합형 글로벌 인재  
2회 : 글로벌 인재 양성 사업의 현장연수와 실천봉사

## 국제 사회에 기여할 글로벌 인재 키운다

이번 2014년 2학기부터 향후 5년간 교육부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게 될 국제화 특성화 사업에 우리 학교의 '인류사회 공헌을 위한 교육과 실천 중심의 융합형 글로벌 인재 양성 사업단'이 선정되었다. 서울과 국제 양 캠퍼스에서 국제화를 선도하고 있는 정치외교학과와 국제학과의 여러 교수들이 지난 4월 수차례의 회합과 논의를 거쳐 글로벌 인재 양성 사업 계획서를 작성했다. 이 과정에서 특성화를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연구 및 교육 비전 등에 대해 토의했다.

'인류사회 공헌'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너무 거창한 것 아닌가 생각하기 쉽지만, 21세기 지구화 시대 대학이 지향해야 할 바는 마땅히 인류 사회 전체에 대한 기여와 공헌이란 점에 대해 쉽게 동의가 이루어졌다. 왜냐하면 '인류 사회'라는 화두는 이제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눈앞에서 펼쳐지는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각종 문제들, 예를 들어 복지, 고령화, 다문화, 경제적 불평등, 연금, 환경 등의 이슈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많은 나라들이 이미 겪었거나, 다르고 있는 공통의 이슈다. 또한 국제 개발과 협력, 그리고 국제 비즈니스는 우리의 경험을 인류 사회 전체와 공유함으로써 더욱 발전 시킬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따라서 정치외교학과 주도의 글로벌 시민사회, 글로벌 격차해소, 그리고 국제학과 주도의 글로벌 개발 및 글로벌 비즈니스라는 네 개의 영역을 핵심 축으로 하는 인증 프로그램을 특성화 사업의 핵심 축으로 지정했다.

**화합과 소통의 리더십,  
21세기형 리더 양성이 목표**

앞서 언급한 네 가지 특정 분야 인증 프로그램은 또한 각각 네 가지의 역량에 집중한다. 인문학 소양 교육을 통한 리더십 함양, 교과목 위주의 대학교육 강화, 취업·진로·연수 프로그램, 그리고 실천 및 봉사가 주요 내용이다. 다시 말해 정치외교학과와 국제학과에서 생각하는 글로벌 인재는 이처럼 인문학 훈련을 받은 인성은 사회과학적 분석력·통찰력을 갖추고, 해외연수와 취업특강 등을 통한 잠재력 개발 과정과 사회봉사·현장 실천의 단계를 거치며 만들어



진다.

이러한 관점은 우리나라의 국제화 단계와도 닮아 있고 지구적 차원에서의 국제화 과정과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은 과거 원조 수혜국으로서의 지위를 벗어나 이제는 후발 국가들의 경제 및 사회 발전의 룰 모델이 될 여지가 충분한 단계에 와 있다. 또한 21세기 들어서 국제화의 변화 방향 또한 하향식 및 정부 주도 경제 원조 범주를 넘어서 상향식 및 민관 파트너십을 강조하는 추세다. 이처럼 정치외교학과와 국제학과가 추진하는 글로벌 인재 양성 국제화 사업은 현실에 대한 냉철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되 화합과 소통의 리더십으로 무장한 21세기형 리더를 양성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이미 국제화라는 말은 흔한 표현이 되었다. 그런데 실상 어느 정도 국제화 교육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개념의 국제화에 대한 이해가 충분한지에 대해 생각해 본다면 우리 글로벌 사업단의 가치와 비전이 이해될 것이다. 우리에게 융합형 글로벌 인재 양성은 선택 사항이 아닌 필수 사항이다. 안보와 무역, 평화와 교류 등 국제적 이슈는 우리에게 있어 바로 현실적인 삶의 질 문제와 직결되어온 지 오래다. 지정학적 위치나 역사적인 경험 등 여러 측면에서 볼 때 우리는 세계와 연결되어 있고 세계는 우리에게

중요하다.

그런데 여태까지의 국제화 교육은 언어, 기술, 지식 등 부분적 접근에 치우친 경향을 보여 왔던데 비해 갈수록 지리적, 심리적 거리가 가까워지는 글로벌 시대는 종체적이고 융합적인 글로벌 인재를 요구하고 있다. 이전의 국제화 교육이 부분과 부분을 맞추어 전체를 그리는데 중점을 두었다면, 이제는 전체 자체를 송두리째 바꾸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새로운 글로벌 시대에 맞는 사고 체계와 행동 양식에 대한 교육이 그것인데,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인류 사회'라는 주제가 적실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단순히 기술적 능력이나 개인적 체험을 강조하는 국제화 교육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바로 '인류 사회'의 현재와 미래를 항상 고민하는 글로벌 인재를 길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인류 사회'를 고민하는 인재,  
국제문제 해결의 열쇠**

학문과 실천을 겸비한 융합형 글로벌 인재들이 우리 사회를 위해서 할 수 있고 해야 할 일들은 무궁무진하다. 앞서 언급한대로 우리 사회의 첨예한 이슈들은 다문화, 고령화, 경제 민주화, 시민사회, 글로벌 협

력 및 글로벌 비즈니스 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인문학적 인성과 사회과학적 분석력을 바탕으로 해외 현장 연수와 사회 공헌 훈련을 받은 실천형 인재들이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질 것이다.

그런데 우리 사업단이 글로벌 인재 양성 사업을 위해 국가에서 지원받은 재정을 집행할 때 염두에 두고 있는 중요한 사안이 하나 있다. 바로 "Money can't buy everything"이다. 풍성한 재정 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해외 경험을 돋우고 취업·진로 특강을 마련하더라도 절대로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가치들이 엄연히 존재한다. 오히려 이전처럼 정부 주도로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서 효과와 결실을 거두는 글로벌 시대는 지나갔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는 민간 주도, 현장 중심, 파트너 관계 등 새로운 접근법들이 시도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한편 재정 지원 없이 학생들에게 세계와 현실을 직접 보여주는 어렵다는 점도 분명하다. 이처럼 필요하나 충분치 않은 재정 지원의 역할과 한계를 분명히 인식하고 글로벌 인재 양성 교육에 우리 모두가 힘을 쏟는다면 우리학교 글로벌 인재 양성 사업 단에서 앞으로 대한민국과 인류사회를 책임지고 이끌어갈 리더들이 무수히 배출될 것이라 확신한다.



"개인적으로 나는 쾌락주의적 독자입니다. 역사가 깊다는 이유로 책을 읽은 적은 없습니다." 보르헤스가 『칠일 밤』에서 했던 이 말은 글쓰기에 있어서도 매우 유효하다. 양심 없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갖게 되는 최초의 순간은 책을 읽는 단계에서나 글을 쓰는 단계에서나 마찬가지로 중요한 모티브가 된다. 읽고 쓰는 일을 지속적으로 즐겁게 할 수 있는 동인을 내면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영감의 폭발, 영감의 마그마는 없다. 글쓰기의 생성과정은 차근차근 나아가는 노정을 갖고 있다. 읽고 사색하고 쓰는 삼위일체의 과정을 지속 반복함으로써 질적인 도약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글쓰기는 수고 없이는 비약적으로 실현되지 않는다. 천천히 걸으면서 자기 자신과 세계에 대한 질문과 응답의 형식으로 정밀하게 구축해 나갈 때 완성되는 것이 글쓰기라고 할 수 있다.

4b연필과 만년필, 철심 등을 번갈아 사용하며 무수한 쓰기 단계를 걸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단계에서 자신의 내적 논리를 충분히 따라가, 글을 쓸 수밖에 없는 이유와 모티브를 추적해보며 글의 완결미를 높이는 방법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글 쓰는 주체는 자신이 구축한 세계에서 생동감 있게 살아 있는 자아를 확인하게 될 것이다.

'글쓰기 1'은 대학생이 생애 최초로 본격적인 글쓰기를 시작한다는 점을 중시하여 이를 통해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자신 속에 무한한 서사와 가능성이 숨어 있음을 발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본인의 글을 타인과 공유하고 이를 동료들이 적극적으로 합평을 해주는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글을 다듬고, 발상의 전환과 독창적 상상력을 통해 생각의 힘을 키우는 방법을 공부하게 된다.

글쓰기의 역설적 진실 가운데 하나는 작디작은 가치를 통해 큰 울림을 줄 수 있다. 거대 담론에 휘둘리지 않을 때, 자신에게 집중할 때 좋은 글이 찾아오는 경험을 학습하게 된다. 자신이 누군지 글로 쓰고 나서야 확인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자신과 마주하기 위해, 자신의 삶에서 자신이라는 알맹이가 빠져버리는 비참을 피하기 위해, 글쓰기의 지속적 수행은 필요하다.

쓰기를 강조한다. '나의 언어'로 '나와 세계'를 표현하기가 글쓰기의 목표이나 나만의 언어를 갖는 일은 쉬운 것이다. 글쓰기 과정의 서사적 시퀀스(sequence)를 통해 인간의 내면과 사회 구조를 이해하게 되는 것은 글쓰기의 소중한 효과라고 할 수 있다.

어느 누구도 닮지 않은 주체적 인간이 되기 위해, 의미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 사색하고 쓰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데 그 시작은 자기 자신이어야 함을 '글쓰기'은 강조하고 있다. 일상의 소소함, 자신에 대한 기록으로부터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는 것이 글쓰기 교육의 목적이다. 자신의 처음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가에 대한 진지한 탐색이 인문학 수업, 교양 수업의 첫 걸음이라고 한다면 이 출발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내면을 들여다보는 깊은 시선으로부터 자기가 속한 단체, 지역사회, 국가 등 바깥 세계로 시선을 확장시켜가도록 이끄는 게 후마니타스 교육의 중요 프로젝트라면 '글쓰기'은 그 첫 단계다.

효율성과 가속화의 경제 논리가 지배하

는 사회에서 글쓰기를 통해 잊어버리거나 잊고 있는 것이 바로 자가 자신은 아닌지 점검하게 하는 강좌다. 글쓰기에 대한 공포와 억눌려 있던 자존감을 스스로를 치유하고 좋은 글을 쓸 수 있도록 견인하는 게 글쓰기 강의의 핵심이다.

서로의 글에 피드백을 주는 경험을 통해 왜곡된 시선이 아니라 우정의 시선으로 타자를 바라보게 하여 세계를 새롭게 발견하도록 한다. 나와 다른, 타자의 문제에 대한 흥미와 열린 시선은 세계를 확장하게 한다. "문제는 그 사람 자신이다"라는 뷔퐁의 말처럼 글을 써서 교감을 나누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인격적인 성숙을 꾀하는 것도 글쓰기 교육의 가치라고 볼 수 있다.

나와 공동체의 가치에 대해 멈춤 없이 사색하고 그 가치를 글로 생산하는 발전소 역할을 하게 될 때 글쓰기 교육의 궁극이 실현될 것이다. 전자책이 나와도 종이책의 주름진 균육, 예민하게 접힌 모서리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종이책의 존재 이유와 글쓰기의 존재 이유도 다르지 않다. 글쓰기는 그 어떤 것에 복무하지 않아도 중요한 가치와 목적성을 지닌다. 살아 있는 한 우리는 읽고 사색하고 쓰는 활동을 멈출 수 없다. 글쓰기의 영감은 마그마처럼 저절로 흘러넘치지 않는다. 읽기와 사색과 쓰기를 멈추지 않을 때 언어로 구축하는 세계의 기쁨을 온전히 맛보게 될 것이다.

**교양리포트①**  
[글쓰기 1]

**언어로 구축하는  
쾌락의 세계**



권현형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글쓰기 1'은 대학생이 생애 최초로 본격적인 글쓰기를 시작한다는 점을 중시하여 이를 통해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자신 속에 무한한 서사와 가능성이 숨어 있음을 발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본인의 글을 타인과 공유하고 이를 동료들이 적극적으로 합평을 해주는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글을 다듬고, 발상의 전환과 독창적 상상력을 통해 생각의 힘을 키우는 방법을 공부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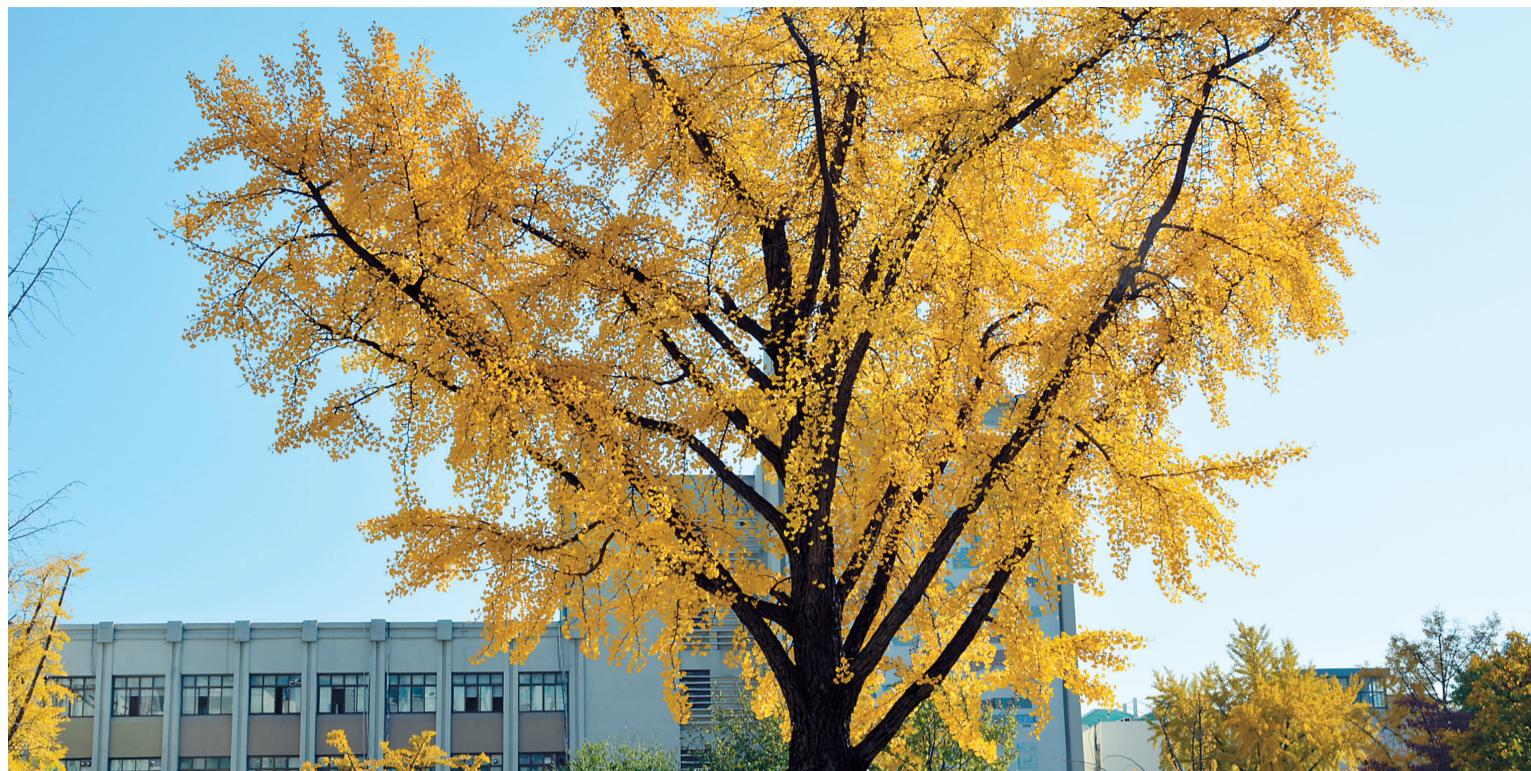
글쓰기의 생성과정은 차근차근 나아가는 노정을 갖고 있다. 읽고 사색하고 쓰는 삼위일체의 과정을 지속 반복함으로써 질적인 도약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글쓰기는 수고 없이는 비약적으로 실현되지 않는다. 천천히 걸으면서 자기 자신과 세계에 대한 질문과 응답의 형식으로 정밀하게 구축해 나갈 때 완성되는 것이 글쓰기라고 할 수 있다.

글쓰기의 역설적 진실 가운데 하나는 작디작은 가치를 통해 큰 울림을 줄 수 있다. 거대 담론에 휘둘리지 않을 때, 자신에게 집중할 때 좋은 글이 찾아오는 경험을 학습하게 된다. 자신이 누군지 글로 쓰고 나서야 확인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자신과 마주하기 위해, 자신의 삶에서 자신이라는 알맹이가 빠져버리는 비참을 피하기 위해, 글쓰기의 지속적 수행은 필요하다.

쓰기를 강조한다. '나의 언어'로 '나와 세계'를 표현하기가 글쓰기의 목표이나 나만의 언어를 갖는 일은 쉬운 것이다. 글쓰기 과정의 서사적 시퀀스(sequence)를 통해 인간의 내면과 사회 구조를 이해하게 되는 것은 글쓰기의 소중한 효과라고 할 수 있다.

어느 누구도 닮지 않은 주체적 인간이 되기 위해, 의미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 사색하고 쓰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데 그 시작은 자기 자신이어야 함을 '글쓰기'은 강조하고 있다. 일상의 소소함, 자신에 대한 기록으로부터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는 것이 글쓰기 교육의 목적이다. 자신의 처음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가에 대한 진지한 탐색이 인문학 수업, 교양 수업의 첫 걸음이라고 한다면 이 출발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내면을 들여다보는 깊은 시선으로부터 자기가 속한 단체, 지역사회, 국가 등 바깥 세계로 시선을 확장시켜가도록 이끄는 게 후마니타스 교육의 중요 프로젝트라면 '글쓰기'은 그 첫 단계다.

효율성과 가속화의 경제 논리가 지배하



은행나무는 사람이 살기 한참 전부터 이 지구상에서 살았던 만큼 역사도, 이야기도 많은 나무다

## 완연한 가을, 노란 은행 잎 '제대로' 알자

### 우리학교 꽃 이야기 (17)

안범철 자연사박물관 학예연구자

이제 학교에도 완연한 가을이 왔다. 단풍나무는 붉게 물들고, 은행나무는 노랗게 물들어 파란 하늘과 함께 절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아무리 나무에 관심이 없다 하더라도 소나무와 은행나무는 알고 있다. 그만큼 흔하고 다른 나무들과 구분하기 쉬운 나무이다.

또 하나 가을이 되면 은행나무 열매를 통해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다. 우리학교에도 은행나무 열매가 짓밟혀 나는 특유의 고약한 냄새가 진동을 한다. 그 냄새가 그리 좋지 못해 사람들이 인상을 쓰는 일도 제법 많다.

은행나무 열매는 왜 좋지 않은 냄새를 풍기고 있을까? 일반적으로 과육이 있는 열매는 대부분 동물이 먹고 그 안에 있는 씨앗을 배설을 하여 멀리 퍼트리는 방법을 사용한다. 은행나무 열매 중에서 냄새를 풍기는 부분은 이 과육인데, 은행열매를 먹고 그 씨앗을 배설하는 것은 작은 동물들에겐 어려운 일이다.

일부 학자들은 은행나무가 고생대부터 지구상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은행 열매를 먹고 배설하는 과정은

과거 대형동물 중 썩은 냄새를 좋아하는 과충류일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다시 말하면 공룡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오래전 은행나무의 씨앗을 퍼트렸던 동물은 당시 커서 높은 나무에 있는 열매를 먹을 수 있어야 했기 때문이다. 결국 은행나무는 공룡이 선호하는 냄새를 풍기고 있는 셈이다.

### 은행 악취, '공룡'이 좋아하는 냄새 공룡 멸종 이후 단 한 종만 남아

현재 은행나무의 자생지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종자를 퍼트려 주는 공룡이 멸종되고 기후가 변화하면서 과거 11종에 달하던 은행나무속의 식물은 멸종하고 지금은 단 한 종인 은행나무만 사람에 의해 키워지고 있다.

은행나무는 가로수로 인기가 많지만, 지금처럼 가을이 되면 냄새가 많이 나오고 길거리에서 은행 열매를 채취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교통의 안전성에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

은행나무를 유심히 관찰을 해봤다면 어떤 나무는 열매를 많이 맺는데, 어떤 나무는 낙엽만 무성하고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 이유는 은행나무

가 암컷인 나무와 수컷인 나무가 따로 있기 때문이다. 가을에 열매를 맺는 것은 당연히 암컷인 나무다.

이러한 암그루를 가로수로 사용하지 않고, 수그루만 가로수로 사용한다면 은행나무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도 문제가 있다. 열매를 맺기 전부터 나무를 키워야 하는데 어떤 나무가 암컷이고, 어떤 나무가 수컷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일단 키워보고 열매를 맺는지 봐야 암수 구별이 됐다.

그런데 몇 년 전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작은 묵목의 잎으로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 암수 구별이 가능하다는 보고가 있었다. 앞으로는 암그루 은행나무는 숲속에 심고, 수그루만 가로수로 사용한다면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은행나무는 가로수나 열매를 먹기 위해서 키우기도 하지만 약용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우리주변에 흔하다 보니 아무 곳에 가도 볼 수 있는 나무로 착각하기 쉬운데 은행나무는 한국, 중국, 일본에서 주로 자라고 있으며 유럽이나 미국 등지에서는 식물원 등지에서 소수로 재배하고 있는 특이한 나무이다. 이런 은행나무는 혈액순환 개선제로 사용이 되는데 아쉽게도 약 성분을 개발한 나라는 우리나라가 아

니다. 원료는 우리나라의 은행잎을 사용하지만 약은 고가의 비용을 지불하고 다시 사와야 하는 실정이다. 우리 주변의 다양한 생물에 대한 연구가 좀 더 철저하게 필요하다.

### 유럽·미국에서는 희귀한 은행 정작 관련 약 '고가'에 수입

은행이라는 이름은 열매가 은빛 살구를 닮았다고 해서 은행(銀杏)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 이 이름으로 인하여 논란이 된 사건이 있다. 바로 공자의 행단(杏壇)에 대한 해석이다. 행단은, 공자가 제자들에게 베풀었던 단(壇)을 가리키는 것인데, 행단에 있는 나무가 살구나무인지 은행나무인지에 대한 논란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행단의 행(杏)을 은행나무로 해석하고, 공자의 가르침을 받들고 있는 향교 대부분에는 은행나무가 심겼다. 그러나 중국의 공자 묘의 행단에는 살구나무가 심어져 있다고 한다.

은행나무는 사람이 살기 한참 전부터 이 지구상에서 살았던 만큼 역사도, 이야기도 많은 나무다. 우리주변의 흔한 나무이지만 결코 흔하지 않은 나무인 것을 알고 은행잎을 물씬 보길 바란다.

### ▶1면에서 이어짐

동진(東晉)의 왕坦지(王坦之)는 《장자》를 없애버려야 할 책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한 바 있고, 유학이 다시 주류가 된 송명(宋明) 이후에는 이단의 책으로 낙인찍히기도 하였다. 《장자》의 《어부》(漁父)나 《도척》(盜蹠)편에서 유학을 비판한 내용이 유학자들에게 비난의 표적이 된 것이다. 하지만 역사의 아이러니라 할까, 오히려 《장자》가 사랑받은 것 또한 송명 시대부터이다. 유명한 장자 주석서를 낸 송대의 임희일(林希逸)은 유가의 경전인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이나 사마천의 《사기》 조차 미치지 못하는 위대한 문장이 《장자》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장자》는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비판, 비운의 운명을 살아가는 절망한 지식인들의 위안, 예술적 해방의 정신, 도교적 양생의 선구였다.



《장자》는 세속의 풍파에 짜든 지식인들에게는 늘 마음의 위안이 되는 벗이자 지혜의 보고이기도 했다

**《장자》는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한 비판, 비운의 운명을 살아가  
는 절망한 지식인들의 위안, 예  
술적 해방의 정신, 도교적 양생  
의 선구였다.**

해방의 철학, 자유와 평등의 옹호자, 합리적 자연관, 신비 체험의 대명사로 《장자》는 각광을 받는다. 특히 이 데올로기화된 권위주의적 사상에 대한 비판 철학으로 《장자》는 거듭 태어나게 된다.

오늘날 《장자》는 단순히 어느 하나님의 학문 영역에 해당하는 책으로 규정할 수 없다. 이미 한(漢) 나라 때부터 문학 이론과 도교(道教)의 성립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것은 물론, 불교(佛教)가 중국에 수용될 때에는 이론적 가교의 역할도 했다. 더구나 유

안이 편찬한 《회남자》(淮南子), 굴원(屈原)의 《초사》(楚辭) 그리고 《산해경》(山海經)과 더불어 《장자》는 고대 동아시아의 신화와 우주론, 원시 종교 사상을 연구하는 데에도 중요 한 자료가 된다.

또한 《장자》에 나오는 갖가지 비유적 이야기들은 후대에 문인과 시인들의 작품 창작에서 중요한 소재가 되기도 하였으며, 세속의 풍파에 짜든 지식인들에게는 늘 마음의 위안이 되는 벗이자 지혜의 보고이기도 했다. 그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 참여마당

노신애  
(국제학과 2014)



### 장인을 만나다

시간은 끊임없이 흐르고 있다. 세월 속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떠나보내는 것이 많다. 사람, 직업, 문화, 자연 등 수많은 것과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한다. 그 중 많은 것들이 소리도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곳에선 이런 생성과 소멸의 자연스러운 법칙을 거역하는 사람들이 있다. 생명의 사이클이 짧은 시대에 꽃같이 자신의 일을 오랫동안 유지하신 분들, 바로 장인이다. 나와 내 친구들은 여러 장인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그들의 직업과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수안보 막걸리의 장인인 장기서 씨는 중앙대 행정학과를 졸업했지만 2대째 가업을 잊기 위해 과감히 충주로 내려와 '수안보 양조장'을 이어가고 있다. 불광대장간의 장인인 박상범 씨는 현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등재돼 있으며 전통방식을 유지하는 대장장이는 국내 유일하다고 했다. 두 장인이 뿐어내는 밝은 에너지와 유쾌한 농담이 실제 나이보다 훨씬 젊게 보였다.

### 시련을 어떻게 극복하는 지는 큰 차이를 만든다

시작이 어찌되든 우리는 스스로의 길을 정해야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 길을 뚝뚝히 걸어야 한다

장인들을 인터뷰하면서 공통적으로 느꼈던 것은 그들의 자부심이었다. “이 일을 내가 아니라면 누가 하겠는가?”라는 대답이 인상적이었다. 현재 주어진 일을 끝내기 위해 급급한 우리에게는 일에 대한 책임감이 부족해진 지 오래다. 마감 제출 날짜까지 과제를 마치기에 바빴고 조모임 활동에서도 어떻게 하면 빨리 끝내고 갈 지에만 궁리했던 기억에 부끄러웠다. 늘 하고 싶은 일만 하며 살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갖고 묵묵히 일해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대장장이 박상범 씨가 20대인 우리에게 던진 말이다. “요즘 학생들은 너무 책만 공부한다. 사회에서 책대로 되는 것은 없다. 스스로 부딪혀 보면서 대인관계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는 어떻게 견뎌내야 하는 건지 등 다양한 경험을 해야 하는 데 그러지 못하여 작은 어려움에도 쉽게 좌절한다. 스스로 슬럼프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모든 일에는 슬럼프가 있다. 이 시련을 어떻게 극복하는 지는 큰 차이를 만든다. 시작이 어찌되든 우리는 스스로의 길을 정해야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 길을 뚝뚝히 걸어야 한다. 오랫동안 열정을 갖고 세월의 법칙을 거스르며 자신의 일을 해온 사람들처럼, 희로애락을 담고 있는 막걸리처럼, 뜨거운 불에 더욱 단단해지는 시우쇠처럼 우리는 역사가 될 것이다.

사회는 빠르게 변화되어가고 있고 그 속에서 우리는 불안하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도 이끌어주는 이 없이 목적지를 향해 어려움을 헤쳐 나가야한다. 20대를 먼저 보낸 그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우리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전해질 수 있으면 좋겠다.

### 2015학년도 언론정보대학원 전기 모집요강

#### 1. 석사과정 모집학과 및 인원

구 분	학 과	전 공	모 집 인 원
석사과정 (신입/편입)	제널리즘	신문·잡지 방송 광고 홍보	00명
	전력커뮤니케이션	스피치·토론 정치커뮤니케이션	
	문화콘텐츠	출판·저작권 대중예술 디지털영상	

#### 2.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구 分	자 격	일반전형
석사과정 (신입/편입)	가. 4년제 대학 졸업자 및 2015년 2월 졸업예정자 나.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자	① 입학원서(본 대학원 양식) ② 대학교 졸업예정증명서 ③ 대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 ④ 가족관계증명서 ⑤ 재직 및 경력증명서( 해당자) ⑥ 반영원전 사전 2대(원서부착증)

\* 학사과정 편입자의 경우에는 편입 전 학교 성적증명서도 같이 제출

3. 선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료: 50,000원)

#### 4. 전형일정

구 分	일 정	장 소
원서교부 및 접수	2014.11.17(월) ~ 11.27(목)	방문접수 우편접수
전형일(면접)	2014.12.6(토) 14:00	본교 청운관 613호

5. 특전 : 경희문화대학, 공무장학, 언론장학, 모범장학 등

6. 교육의 특징

- 야간 수업 진행으로 직장인 학습 편의 제공

- 사이버 강의 운영으로 친숙한 온라인 학습 환경 제공

#### 7. 입학문의

- 전화 : 02-961-0560~(청운관 6층)

- 주소 : 서울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청운관 606호

- 이메일 : khs2520@khu.ac.kr

- 웹사이트 : http://khu.communication.ac.kr

경희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 스포츠 / 문화

# 낙서로 만나는 ‘잉여’로운 청춘



그가 모은 거리의 낙서들은 청춘의 불안의 표현이자, 우정과 사랑의 약속으로 읽힌다

**인터뷰 - 도인호 동문  
『청춘의 낙서들』 저자**

이진우 기자 urusa93@knu.ac.kr

#. 우리는 흔히 ‘낙서’라면 오래된 벽면에 지저분하게 휘갈겨진 글씨와 그림들을 연상한다. 낙서는 ‘금지된’ 행동이다. 공공질서를 위반하는 일이다. 그렇기에 낙서는 반항하는 하위문화로 취급받아왔다. 하지만 이런 낙서를 수집하는 사람이 있다. 『청춘의 낙서들』의 저자 도인호(조경학 2005) 동문이다. 그는 ‘낙서수집’ 따위의 ‘잉여로운’ 행동을 후배들에게 과감히 권했다.

‘포스트모더니즘 미학과 예술’ 과목을 강의하는 서정자 교수는 ‘강연회’를 준비했다. ‘뻔한’ 강연회를 예상하던 순간, 강단에 선 그는 스스로를 ‘낙서수집가’라고 소개했다. 수많은 수집가를 들어봤지만, ‘낙서’를 수집하는 사람이라니. 『청춘의 낙서들』의 저자 도인호 동문과의 첫 만남이었다. 그의 강연이 끝나고 호기심에 도동문이 운영하는 블로그 ‘서울의 낙서’를 찾았어. 벽에, 간판에 혹은 보도블럭에 써 있는 또는 그려져 있는, 심지어 새겨져 있는 낙서들과 그의 이야기는 매력적이었다. 그

래서 그의 수집품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다. 지난 4일 도동문을 만났다.

도동문은 2008년부터 지금까지 낙서를 수집하고 있다. 그가 ‘낯선’ 취미를 갖게 된 것은 잠실역 화장실 두 번째 칸에 적힌 ‘야한’ 낙서를 본 다음이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그 낙서는 여느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수위가 아주 높았다고 한다. 욕정을 화려하게 묘사해낸 음담패설들은 기억 속에 깊이 자리 잡혔다. 제대한 후 그는 다시 잠실역 화장실에 들르게 됐고, 되살아나는 기억에 두근대며 연 두 번째 칸에는 다른 낙서들이 자리 차지하고 있었다.

낙서가 지워지고, 새로운 낙서가 쓰인 일을 도동문은 다시 경험한다. 집 앞 담벼락에 누군가 초록색 스프레이로 뿐린 자국 위에, 다른 누군가는 ‘요상한 형’이라는 낙서를 남겼다. 매일 보는 그 담벼락의 낙서에 정이 들던 무렵, 환경미화와 함께 담벼락은 ‘깨끗해’졌다. 도동문은 “내게 안도감을 주는 조금 특별한 의미의 낙서가 어느날 지워져버렸다. 그때부터 낙서들이 언젠가 지워질지 모른다는 생각에 ‘수집’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후 서울 곳곳으로 발걸음을 옮긴 도동문은 낙서들을 찍어 블로그에 게시한다. 사

진만 찍은 것은 아니다. 낙서에서 받은 단상과 추억을 글로 옮겼다. 그리고 이 글은 낙서와의 대화로 이어진다. 예를 들어 남자 화장실 소변기 앞에 적힌 ‘내가 너보다 더 커’라는 말에 그는 모욕감을 느끼며 ‘뭐가 이 자식아?’라고 답한다. 그렇게 채워진 ‘낙서 지도’ 속 사진과 글은 『청춘의 낙서들』이라는 책으로 탄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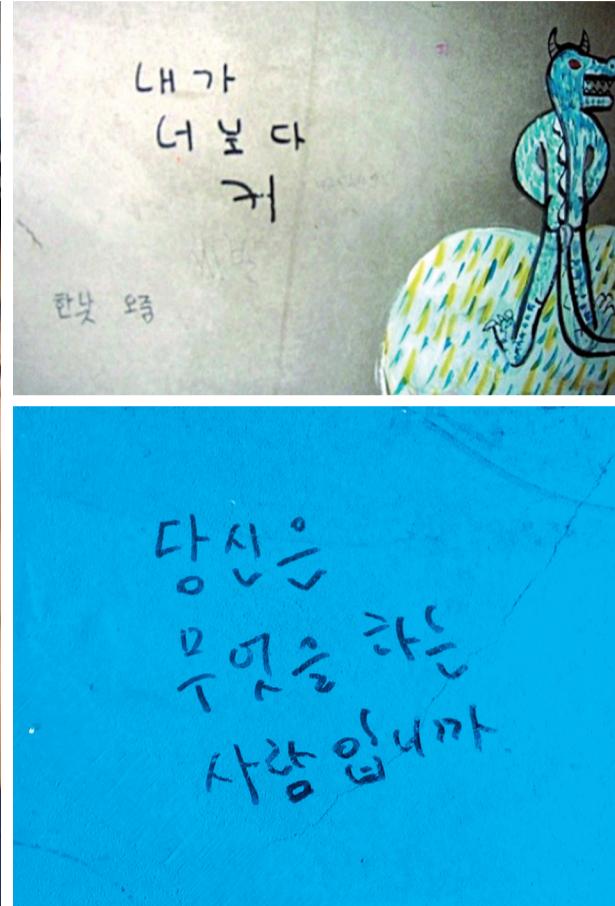
도동문은 “편집자가 처음 ‘청춘’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다고 말했을 때 나는 반대했다. 다른 ‘청춘’들처럼 세상을 열심히 살아온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부담스러웠다”고 전했다. 그러나 그의 이야기를 낙서와 함께 풀어내다 보니 『청춘의 낙서들』은 그의 청춘이 담은 책이 됐다.

좀 더 나아가 그에게 ‘요상한 형’이 안도감으로 다가온 것처럼, 그가 모은 거리의 낙서들은 청춘들의 불안의 표현이자, 우정과 사랑의 약속으로 읽힌다. 침을 수 없는 욕구의 배출이면서도, 위로하는 글귀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낙서가 ‘금지된’ 일임은 변하지 않는다. 일탈의 흔적을 보려 다니고, 심지어 모으는 일은 요즘 사회가 요구하는 청춘과 거리가 멀다. 낙서 따위에 관심을 갖는 도동문 같은 사람들을 ‘잉여인간’

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그는 이런 잉여로움이 ‘청춘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자 필요 한 일이라고 반박한다. 그는 “후배들이 맹목적으로 학교를 다니는 모습을 많이 봤다”며 “학문이 아닌 학점을 챙겨야하는 사회와 대학가의 분위기 때문에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후배들이 안타깝다”고 말한다. 그는 ‘청춘’은 자신이 원하는 삶의 방식을 고민하는 때라고 조언한다. 그는 “30대가 되어 고민하는 것은 주변사람에 대한 만행”이라며, “청춘을 고민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라”고 말한다.

하지만 도동문이 수집하는 낙서는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 그는 그 이유를 “사람들이 더 이상 심심하지 않아서”라고 말한다. 반대로 심심할 겨를조차 없는 청춘들이 늘 어난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래서 그는 앞으로도 글을 계속 쓰고 싶다. 가장 잉여로운 취미로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았다고 믿기 때문이다. 낙서가 주는 의미처럼 그의 잉여로움이 누군가에게 청춘의 새로운 의미를 보여줄 수 있을지 지금은 알 수 없다. 다만 그가 수집한 ‘LOVE YOUR SELF’라는 낙서처럼, 스스로를 더 사랑하는 청춘은 ‘지워지지 않는 낙서’로 남길 바래본다.



## 조별리그 1승 1무, 토너먼트 진출 청신호

### U리그 왕중왕전

김윤철 기자 kycxellos@knu.ac.kr

우리학교 축구부가 경상남도 남해에서 개최된 ‘2014 카페베네 U리그 왕중왕전’ 조별리그에서 1승 1무를 거두고 16강 진출에 청신호를 켰다. 우리학교는 U리그 왕중왕전에서 중앙대, 동의대, 청주대와 함께 5조에 배정됐다.

왕중왕전에는 권역별 성적을 바탕으로 상위 32개 팀이 참가한다. 이후 조 배정 및 추첨을 통해 8조를 각각 4팀으로 편성한다. 조별 리그에서 2위까지 16강 토너먼트에 진출하게 된다.

우리학교 축구부는 지난 6일 비자구장에서 중앙대와 조별리그 첫 경기를 치렀다. 이 경기에서 고승범(스포츠지도학 2013) 선수가 두 골을 넣으며 2-2로 무승부를 거뒀다.

이어진 8일 조별 리그 두 번째 경기에서는 청주대를 상대로 후반전에만 4골을 몰아치며 대승을 거뒀다. 후반 9분 유진석(스포츠지도학 2014) 선수가 선제골을 기록했고, 이어 12분에 김정세(스포츠지도학 2011) 선수가 추가골을 넣었다. 또한 선수간의 연계플레이도 두드러졌다. 후반 27분 유진석 선수의 스루패스를 받아 박인혁(스포츠지도학 2014) 선수가 가볍게 밀어넣으면 3번째 골을 성공시켰고, 후반 36분 김한솔(스포츠지도학 2012) 선수가 올려준 공을 유진석 선수가 그대로 성공시키며 경기를 4:1로 마무리지었다.

우리학교는 10일 12시 40분에 바다구장에서 동의대와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를 치를 예정이다.

### (U리그 왕중왕전 5조 권역별 성적)

경희대	4권역 2위, 7승 4무 3패
중앙대	3권역 2위, 6승 4무 2패
동의대	10권역 1위, 11승 2무 1패
청주대	5권역 3위, 6승 4무 4패

# 시간이 흘러도 위대한 생각은 녹슬지 않습니다

스물 어덟 글자로 백성의 눈을 뜨게 하겠다는 세종대왕의 혁신적인 생각처럼  
수백년이 지나도 변함없는 위대한 가치들이 있습니다. 포스코는 다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보다 혁신적인 생각으로 세계 제일의

철강기업을 넘어 사랑받고 존경받는 기업, POSCO the Great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위대함을 향해 갑니다  
**posco**

